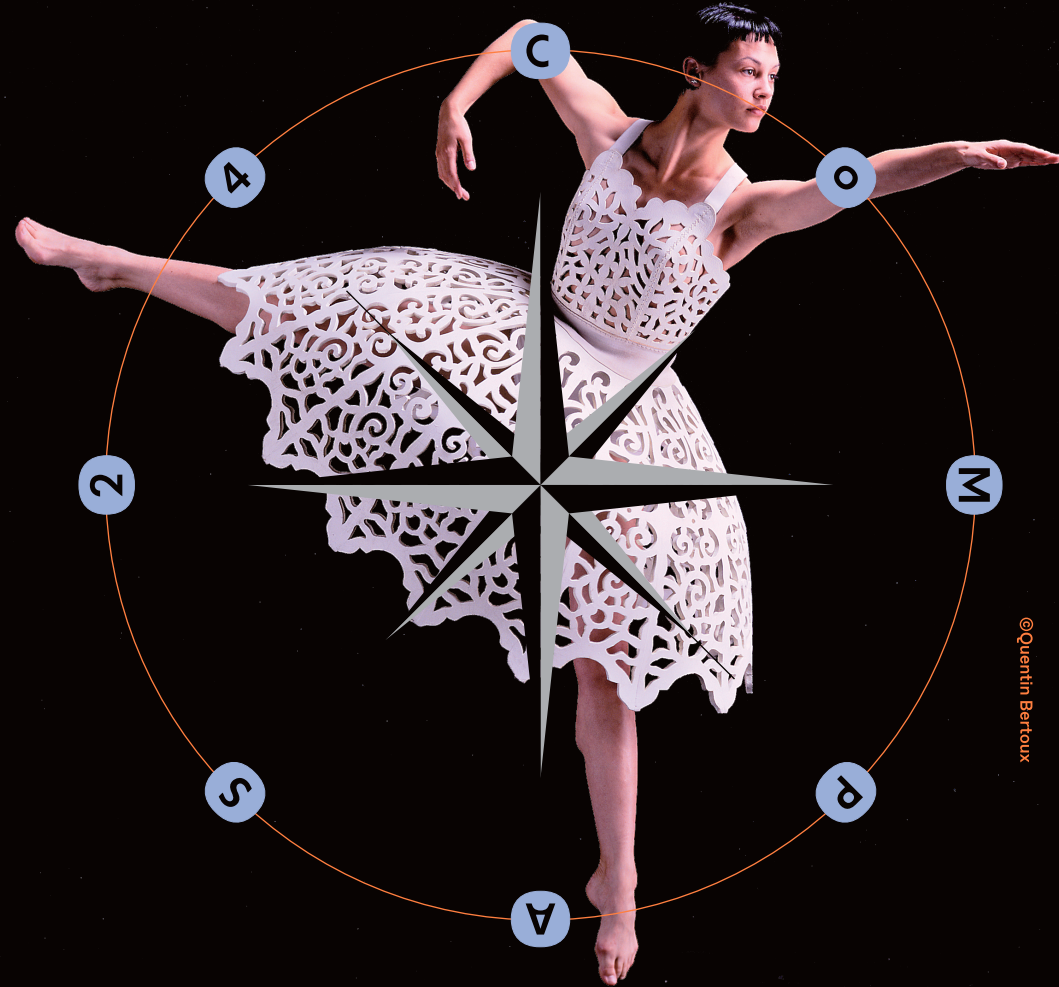


CoMPAS 24

LG아트센터 서울

2024년 기획공연 시즌



©Quentin Bertoux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24

LG아트센터 서울 기획공연
CoMPAS 24
24.4.7 - 25.1.19

LG Arts Center SEOUL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24



LG SIGNATURE 홀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마태 수난곡'
Freiburg Baroque Orchestra
J.S. Bach: 'St. Matthew Passion'
4.7 Sun
VIP 250,000 R 200,000 S 140,000 A 70,000

파비오 비온디 & 잔자코모 피나르디 '파가니니 소나타'
Fabio Biondi & Giangiacomo Pinardi
'Paganini: Sonatas for Violin & Guitar'
5.4 Sat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매튜 본의 '로미오와 줄리엣'
Matthew Bourne's 'Romeo and Juliet'
5.8 Wed - 19 Sun
VIP 140,000 R 120,000 S 90,000 A 60,000 B 30,000

사이먼 스톤 연출 '벚꽃동산'
'The Cherry Orchard' by Simon Stone
6.4 Tue - 7.7 Sun
R 110,000 S 80,000 A 60,000 B 40,000

고티에 카뤼송 & 장이브 티보데
Gautier Capuçon & Jean-Yves Thibaudet
10.1 Tue
VIP 150,000 R 120,000 S 90,000 A 60,000

존 엘리엇 가디너 &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Sir John Eliot Gardiner &
Orchestre Révolutionnaire et Romantique
10.8 Tue
VIP 280,000 R 220,000 S 160,000 A 100,000

필립 드쿠플레 '샤잠!'
'SHAZAM!' by Philippe Decouflé, Compagnie DCA
10.25 Fri - 27 Sun
LG SIGNATURE 110,000 R 90,000 S 70,000 A 40,000

조엘 폼므라 '이야기와 전설'
'Tales and legends' by Joël Pommerat
Compagnie Louis Brouillard
11.7 Thu - 10 Sun
R 80,000 S 60,000

백건우와 모차르트
Kun-Woo Paik & Mozart
11.13 Wed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U+ 스테이지

이은결 연출 '멜리에스 일루션'
'MELIES ILLUSION' by Company EG
11.9 Sat - 17 Sun
All seats 66,000

연극 '타인의 삶'
'Das Leben der Anderen'
11.26 Tue - 25.1.19 Sun
All seats 77,000



Designed by 개미그래픽스

LG아트센터 서울 LG Arts Center SEOUL



©배지훈

LG아트센터 서울의 2024년 기획공연은 다음의 파트너들과 함께합니다.

협찬 Sponsored by



후원 Supported by



LG아트센터 서울은 '문화 예술의 창작과 교류를 통한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목표로 LG연암문화재단에서 LG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연장입니다.

2000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개관한 LG아트센터는 동시대를 살면서 놓쳐서는 안 될 세계적인 작품들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예술가와 관객 모두에게 놀라운 영감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2년간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LG아트센터는 2022년 10월 마곡지구에서 'LG아트센터 서울'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풍부한 자연 환경 속에서 확장된 예술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LG아트센터 서울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예술가와 열정적인 관객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The LG Arts Center was built by the global group LG in 2000 to make cultural contributions to society by presenting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to the Korean audience.

After successfully running the center for 22 years, the LG Arts Center set place in its new home in the Magok area, Gangseo district, Seoul, in 2022. With its new construction designed by world-famous architect Tadao Ando, the LG Arts Center SEOUL is reborn as an open space that offers an expanded artistic experience surrounded by a rich natural environment.

The LG Arts Center SEOUL will continue to be the place where performing arts can be appreciated and where creative artists and passionate audiences can meet, communicate, and visit freely.



CoMPAS 24 할인



개별 티켓 오픈: 24.1.12(금) 1pm ~

[유의사항]

- 모든 할인은 중복 및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본 할인은 LG아트센터 서울 기획공연 'CoMPAS 24'에만 해당됩니다.
- 모든 할인은 관람자 기준이며, 할인증빙이 포함된 할인티켓은 현장 '할인 증빙 창구'에서 할인 대상자 본인이 오셔야 수령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미지참 또는 할인 기준 미달 시, 정가 기준 차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타인의 삶'은 추후 별도로 오픈합니다.

조기예매 할인

24.1.12(금) 1pm - 2.29(목)

★ 기간 내 10% 할인

- 해당 공연: CoMPAS 24 12편 중 11편('타인의 삶' 제외)

청년 할인

★ 2001.1.1 이후 출생자 본인 대상,

공연별 회당 100매 한정

★ R, S석 20% / A, B석 30%

- 청년 할인은 본인 관람 시에만 적용됩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 차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VIP, LG SIGNATURE 석은 청년 할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석 동일 등급 공연의 경우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공연예술전문가 할인

- 공연예술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경력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록 후 2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LG아트센터 회원가입 후 'MY LG아트센터' -> '회원정보 수정' -> '공연예술전문가 등록' 참조

장애인/국가유공자 할인

★ 장애인 1~3급 본인 외 1인까지, 50% 할인

★ 장애인 4~6급 및 국가유공자, 본인만 30% 할인

- 티켓 수령 시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현장 확인, 증빙서류 미지참 또는 할인 기준 위반 시 정가 기준 차액을 현장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 휠체어 이용자는 공연장 및 객석 구조에 따른 안내와 상담을 위해 LG아트센터 서울 티켓박스(1661-0017)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CoMPAS 24 Discounts



Booking Period : 24.1.12 1pm ~

[Notice]

- All discounts cannot be combined or applied retroactively and the following discounts are only applicable to LG Arts Center SEOUL's 'CoMPAS 24.'
- All discounts are offered based on the attending audience. For discount tickets that require proof of eligibility, the eligible person must personally pick them up at the ticket window.
- Failure to meet eligibility or violation will require payment of the price difference.
- Single ticket sales for 'Das Leben der Anderen' will be announced at a later date.

Early Bird Discount

Booking Period : 24.1.12 1pm - 2.29

★ Receive a discount of 10% on each performance, available until 29 Feb 2024.

- Not applicable to 'Das Leben der Anderen'.

Youth Discount

★ Eligible for those born after December 31, 2000, and limited to 100 tickets per performance

★ R, S tier 20% discount / A, B tier 30% discount

- The Youth Discount only applies to the eligible person attending. Its violation will require you to pay the price difference.
- The Youth Discount does not apply to VIP and LG SIGNATURE tiers.
- 20% discount will be applied for single tier performances.



LG SIGNATURE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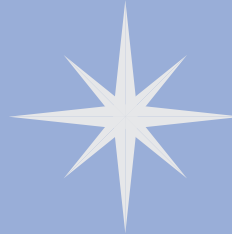
LG SIGNATURE 홀은 클래식,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1,335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입니다. 어떠한 공연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무대와 장르에 맞춰 변화하는 음향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벽 안에 숨겨진 배너 커튼(VABS)을 통해 잔향시간을 조절하고, '박스 인 박스(Box in Box)' 구조로 설계되어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을 완벽히 차단함으로써 최고의 공연 환경을 구현하는 공연장입니다.



©배지훈

LG SIGNATURE Hall

The LG SIGNATURE Hall is a multipurpose theatre that combines the size of an opera house. It can accommodate almost all genres of performances, including operas, musicals, ballets, and concerts. The theatre boasts an acoustic environment equivalent to a professional concert hall and is equipped with high-end technologies, like the *Variable Acoustic Absorption System*, *Reflectors*, and a *Moving Tower*. With all of these theatre features, it allows to create an acoustic setting for all genres of art.



* LG SIGNATURE 홀은 본질의가치 (The Art of Essence)를 지키며 삶이 예술이 되는 경험을 제시하는 LG전자의 초 프리미엄 가전 LG SIGNATURE의 브랜드 가치를 담은 공연장입니다.

Sponsored by

LG SIGNATURE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마태 수난곡’

Freiburg Baroque Orchestra J.S. Bach: ‘St. Matthew Passion’

4.7 Sun 3pm
LG SIGNATURE Hall
VIP 250,000 R 200,000 S 140,000 A 70,000

관람연령 | 초등학교생 이상
소요시간 | 3시간 30분(휴식 1회 포함)

프로그램. 바흐, ‘마태 수난곡’, BWV 244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ge Guidance | 8+
Duration | 3hrs 30mins with one interval

Program. Bach: ‘St. Matthew Passion’, BWV 244
*This program may b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투명하고, 언제나 리드미컬하게 탄력있다.
또 가사의 아름다움만큼 고도의 부드러운 기교를 보여주며, 선율적으로 우아하다.” 남독일신문
“Overall, it sounds fabulously transparent, rhythmically always elastic, virtuoso smooth and melodically as elegant as it is lyrically beautiful.”
South German Newspaper



복음사가: 막시밀리안 슈미트(Maximilian Schmitt)
예수: 야닉 데부스(Yannik Debus)
소프라노: 카테리나 카스퍼(Kateryna Kasper)
알토: 필립 자루스키(Philippe Jarousky)
테너: 재커리 와일더(Zachary Wilder)
베이스: 안드레아스 볼프(Andreas Wolf)
하프시코드&음악감독: 프란체스코 코르티(Francesco Corti)
합창: 취리히 징아카데미(Zürcher Sing-Akademie) &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연주: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Freiburg Baroque Orchestra)



©Valentin Behringer

독일 정통 시대악기 앙상블이 들려주는 바로크 음악 최고의 걸작이자 인류의 유산 ‘마태 수난곡’

종교를 초월한 울림과 감동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흐의 ‘마태 수난곡’을 시대악기’를 사용해 제대로 연주하는 악단, 독일의 대표 시대악기 앙상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5년 만에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신약성서 마태 복음서를 바탕으로 한 수난곡(Passion)인 이 작품은 바흐가 그의 음악적 역량을 쏟아내 완성한 3시간이 넘는 대작으로 바로크 음악 최고의 작품 중 하나이자 인류사에 기념비적인 걸작으로 손꼽힌다. 이 작품은 바흐가 초연한 이후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거의 잊혀졌지만, 바흐 사후 멘델스존에 의해 재발견되면서 세계적인 레퍼토리가 되었으며, 현재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목상하는 약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연주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는 프란체스코 코르티(Francesco Corti)의 지휘 아래 여러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풍성한 무대를 준비한다. 스위스의 취리히 징아카데미, 한국의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과 함께, 세계적인 카운터 테너로 2014년 LG아트센터 내한 이후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필립 자루스키(Philippe Jarousky)를 포함한 6명의 최정상급 솔리스트들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2024년 4월, LG아트센터 서울에서 만나게 될 묵직한 감동을 절대 놓치지 말자.

Freiburg Baroque Orchestra, one of Germany’s major period instrument ensembles, takes the stage in Korea after five years, joined by Zürcher Sing-Akademie and Collegium Vocale Seoul to perform J.S. Bach’s masterpiece. His St. Matthew Passion based on the Gospel of Matthew from the Bible is the crowning achievement showcasing J.S. Bach’s musical prowess and sincere faith at his best. Lasting over three hours, it stands not only as the culmination of all Baroque sacred music but also as one of the greatest musical monuments of humankind. The concert will also provide a special chance to hear six soloists of the highest caliber in one setting, including countertenor Philippe Jaroussky, who graced the LG Arts Center stage in 2014 to a great acclaim.

‘시대악기(Period Instrument)란?
‘고악기’, ‘원전악기’ 등으로도 불리며 수백 년 전 음악이 작곡된 시대의 양식 그대로 만들어진 악기를 뜻한다. 바이올린의 경우 강철 현이 아닌 양의 창자를 꼬아 만든 거트 현을 사용하는 등 악기의 모양·음량·음색·연주법 등이 현재의 악기와 구별된다.

A R T I S T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Freiburg Baroque Orchestra

사이먼 래틀 경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극찬한 독일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시대악기 악단. 베를린 필하모니, 런던 위그모어홀, 뉴욕 링컨센터, 필하모니 드 파리 등 세계 주요 공연장 뿐 아니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인스브루크 고음악 페스티벌과 같은 유수의 음악 축제에 초청받는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1987년 창단부터 지금까지 바로크 음악의 전통을 부활시키는데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받는다.

파비오 비온디 & 잔자코모 피나르디

‘파가니니 소나타’

Fabio Biondi & Giangiacomo Pinardi ‘Paganini: Sonatas for Violin & Guitar’

5.4 Sat 5pm
LG SIGNATURE Hall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관람연령 | 초등학교 8학년 이상
소요시간 | 100분(휴식 1회 포함)

프로그램. 파가니니,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등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ge Guidance | 8+
Duration | 100mins with one interval

Program. Paganini: Sonatas for Violin & Guitar, etc.
*This program may b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그저(이 음반을) 사라고 말하고 싶다. 몇 마디가 채 지나기도 전에 만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곡의 분위기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악기를 통해 두 연주자는 노래하는 듯 편안하고 감미로운 사운드와 능숙한 기교를 보여준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앨범이다.”
그라모폰

“There’s an extent to which all I need to say here is ‘Go and buy it’, because even before the first three bars are out you’ll be happy that you did... The first thing to say is that the instruments themselves feel absolutely spot-on...and are played with an effortlessly singing mellifluousness and nonchalant virtuosity...An indisputable cracker.”
Gramophone

연주
파비오 비온디(Fabio Biondi, Violin)
잔자코모 피나르디(Giangiacomo Pinardi, Romantic Guitar)

©Emile Ashley



바로크 바이올린 거장 파비오 비온디의 첫 듀오 리사이틀

로큰롤 같은 파격적인 ‘사계’로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켰던 바로크 바이올린 거장 파비오 비온디의 연주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국내에서는 여러차례 함께 내한한 세계적인 앙상블 에우로파 갈란테의 리더로 더 친숙하지만, 사실 그는 카네기홀, 위그모어홀 등에서의 리사이틀을 통해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뛰어난 비르투오소(더 가디언)”라는 호평을 받는 솔리스트로도 유명하다. 한국에서의 첫 듀오 리사이틀이기도 한 이번 공연에서 파비오 비온디는 자신이 태어난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할 정도로 당대 초인적인 기교를 뽐냈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를 선택했다. 파가니니는 바이올린뿐 아니라 기타에도 애정을 가지고 수준급의 연주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가 19세기 초에 쓴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는 2018년 비온디가 자신의 스타일로 부활시켜 녹음했을 때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음악적으로 정교하다(더 스트라드)”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 앨범 수록곡을 중심으로 한 이번 연주에서는 2001년부터 에우로파 갈란테에서 함께 해 온 연주자 잔자코모 피나르디가 1825년산 로맨틱 기타로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무엇을 연주하든 감각적이고 절제된 터치로 자신만의 매력을 온전히 보여주는 비온디의 첫 번째 듀오 무대를 기대해도 좋다.

Baroque violinist Fabio Biondi, who took the world by storm with his ensemble Europa Galante for their sensational and powerful interpretation of Vivaldi’s ‘Four Seasons,’ will present an intimate chamber music recital in May. He is joined by his long-time colleague and plucked-string specialist from Europa Galante, Giangiacomo Pinardi, to perform Niccolò Paganini’s sonatas for violin and guitar. Composed in the early 1800s, these pieces are filled with wit and energy emanating from sweet melodies that perfectly suit the beautiful spring season. The harmony of the bright violin and romantic guitar will warm the hearts of the audience.

ARTIST

파비오 비온디 Fabio Biondi

전 세계 50만 장이라는 클래식 음반으로는 경이로운 판매고를 기록했던 파격적인 비발디 ‘사계’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로크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지휘자. 1989년 28세라는 젊은 나이에 창당한 ‘에우로파 갈란테’를 단숨에 세계적인 앙상블로 키워낸 주인공으로, 20년 전 LG아트센터 무대를 통해 처음 내한한 이후 꾸준히 국내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잘 알려진 곡뿐 아니라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들을 찾아내는데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는 바로크, 고전, 초기 낭만주의까지 3세기에 걸친 다양한 레퍼토리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으로 “신선하고, 활기찬 연주(뉴욕타임즈)”, “세계 최고의 앙상블 중 하나(그라모폰)”라는 평을 들으며 에우로파 갈란테와 함께 수백 년 전 음악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매튜 본의 '로미오와 줄리엣'

Dance Theatre

New Adventures and Sadler's Wells present

Matthew Bourne's 'Romeo and Juliet'

5.8 Wed - 19 Sun Tue-Fri 7:30pm / Weekends 2:30pm & 7:30pm
 LG SIGNATURE Hall
 VIP 140,000 R 120,000 S 90,000 A 60,000 B 30,000

*5.9 Thu & 5.15 Wed
 2:30pm & 7:30pm
 *5.19 Sun 2:30pm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소요시간 | 1시간 50분(휴식 1회 포함)

Age Guidance | +14
 Duration | 1hr 50mins with one interval

“격동적인 젊음의 반란.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이 시대의 로미오와 줄리엣” 더 스테이지

“A seismic Youthquake. A Romeo and Juliet for the Millennial Generation.” The Stage

NEW ADVENTURES AND SADLER'S WELLS PRESENT

Matthew Bourne's ROMEO+ JULIET

Music by PROKOFIEV



©Johan Persson

위대한 스토리텔러 매튜 본이 그린 첫 사랑의 다이내마이트!

새하얀 타일로 둘러싸인 벽, 경비원들의 규율과 통제 로 가득한 '베로나 인스티튜트'. 기성세대에 의해 '문제 아'로 분류된 청소년들을 교정하는 이곳에 불안하고 겁먹은 '로미오', 학대받고 있는 '줄리엣'이 있다. 함께 춤추며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두 남녀는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고 서로를 뜨겁게 그리워하게 된다.

위대한 스토리텔러 매튜 본이 돌아왔다. 익숙한 이야기를 새롭게 들려주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는 셰익스피어가 쓴 불멸의 로맨스이자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을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젊은 세대의 순수함과 열정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다. 이번 프로덕션을 위해 그는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오디션을 통해 10대 신예 무용수들을 선발하고, 20대 여성 안무가 아리엘 스미스(Arielle Smith)와 공동 안무를 하는 등 작품 제작 과정에서도 젊은 이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고스란히 담았다. 관객들은 베로나의 청년들이 마치 무대 위에 지진을 일으키는(youthquake) 것 같이 요동치는 감정과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초연된 '로미오와 줄리엣'은 영국의 유력 언론으로부터 별 다섯 개 만점을 받으며 매튜 본의 새로운 대표작으로 인정받았다. 첫사랑의 열정을 담은 다이내마이트 같은 작품, 거침없이 사랑하고 반항하는, 우리 시대를 위한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나보자.

Hailed as “the most popular and successful choreographer in the world” by The Times, Matthew Bourne returns to Korea with 'Romeo and Juliet.' Reimagining Shakespeare's timeless tragic romance and Sergei Prokofiev's ballet music, the master storyteller Bourne transformed it into a tale of the raw passion and vitality of the youth fiercely resisting established norms. Premiered in 2019, 'Romeo and Juliet' became Bourne's new masterpiece, receiving universal critical acclaim from influential British press such as The Guardian, The Daily Telegraph, and The Stage. You will find the explosive obsession of first love as well as the flaming passion of love and rebellion in Matthew Bourne's take on 'Romeo and Juliet' for our time.

ARTIST

매튜 본 경 Sir Matthew Bourne



©Johan Persson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안무가(더 타임스)”라고 평가받는 매튜 본은 이름만으로 장르를 형성한 세계적인 아티스트다. 널리 알려진 고전 레퍼토리를 대담하게 재해석해 즐거움을 주는 그의 작품은 무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관객들을 공연장으로 끌어들이었다. 근육질 남성 백조를 등장시켜 충격을 선사한 '백조의 호수'부터,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가위손', '호두까기인형!', '레드 슈즈', '카 맨', '신데렐라' 등 발표하는 작품마다 평단과 관객의 찬사를 받았다. 그는 올리비에상(Olivier Awards) 역대 최다수상자(9회)일 뿐 아니라, 현대무용가 최초의 기사작위(Knight Bachelor) 수훈자, '백조의 호수'로 토니상(Tony Awards) 최우수 연출상과 안무상을 동시 수상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예술성과 흥행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전설적인 아티스트, 매튜 본의 위대한 역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사이먼 스톤 연출 '벚꽃동산'

'The Cherry Orchard' by Simon Stone



6.4 Tue - 7.7 Sun Tue-Fri 7:30pm / Weekends 3pm *6.6 3pm
 LG SIGNATURE Hall
 R 110,000 S 80,000 A 60,000 B 40,000

관람연령 | 초등학교 5학년 이상

공동제작 LG아트센터, 아틀레이드 페스티벌
 출연 | 전도연, 박해수, 손상규, 최희서, 이지혜,
 남윤호, 유병훈, 박유림, 이세준, 이주원

Age Guidance | 8+

Supported by



전도연

©메나지먼트 송



박해수

©M&M 테이먼트



손상규

©김치전



최희서

©Seoulifilm



이지혜



남윤호

©(주)윙컴피니



유병훈

©Studio L LG아트센터



박유림

©M&M 테이먼트



이세준



이주원

세계와 시대가 주목하는 천재 연출가 사이먼 스톤

그리고 전도연, 박해수 등 한국을 넘어선 글로벌 배우들의 역사적인 만남
 지금 이곳, 한국의 '벚꽃동산'을 만나라!

위대한 극작가 안톤 체호프의 유작 '벚꽃동산'이 고전의 틀을 깨고 우리의 이야기로 새롭게 탄생한다. LG아트센터가 제작하는 이번 연극은 영국 내셔널 시어터부터 넷플릭스까지 경계 없이 활약하는 천재 연출가 사이먼 스톤의 첫 내한과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역대급 캐스팅으로 그 서막을 연다.

한국 배우 최초로 칸 국제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고, 콘텐츠 범람의 시대에도 여전히 히트작을 견인하는 '리빙 레전드' 전도연,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를 강타하고, 2023년 연극 '파우스트'에서 압도적인 연기를 펼치며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킨 박해수의 전무후무한 만남은 벌써부터 폭발적인 시너지를 예고한다. 이뿐만 아니라 손상규, 최희서, 이지혜, 남윤호 등 무대와 스크린을 중형무진하는 빈틈없는 조합의 배우 10인은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원캐스트로 대극장의 무대를 가득 채운다.

감히 제안하자면, 그동안 무대에서 되풀이되던 고전은 이제 그만 잊어도 좋다. 사이먼 스톤의 날카로운 감각은 19세기 '벚꽃동산'을 지금 이곳, 격변하는 한국 사회 한가운데로 옮겨놓고,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는 동시대 인물들의 살아 숨 쉬는 갈등과 고민을 무대 위에서 치열하게 펼쳐낼 것이다.

What kind of changes would await those who return to Korea after leaving for decades? If the city is barely recognizable and people are no longer afraid of authority, what would those returning after a long absence feel about these changes. One of the greatest Russian writers and a master of realism, Anton Chekhov's last play 'The Cherry Orchard' is being revived in the setting of Korea under the direction of Simon Stone. One of the most sought-after directors today, Stone has worked with The National Theatre of UK, Internationaal Theater Amsterdam (ITA) and Netflix, and now he will team up with Korean actors to raise questions about how we all should cope with the rapid pace of the world's changes.

ARTIST

사이먼 스톤 Simon Stone



©Reinhard Maximilian Werner

연극, 영화,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 사이먼 스톤. 그는 극작가이자 연출가, 영화감독으로, 일찍부터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인정받으며, 27살의 젊은 나이로 호주의 대표적인 극장, 벨부아 세인트 극장의 상임연출가로 초청받았다. 사이먼 스톤은 고전의 오래된 질문을 간직하면서도 현재를 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풀어내는 것으로 유명한데, 고전에 미국의 실화를 입힌 '메디아(Medea)', 입센의 다양한 작품을 현대 가족사의 이미지로 풀어낸 '입센 하우스(Ibsen House)'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의 작품은 유럽 무대로 진출하며 천재성을 더욱 인정 받았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탄생시킨 '예르마(Yerma)'는 2017년 로렌스 올리비에상에서 최우수 리바이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영국 국립극장, 인터내셔널 시어터 암스테르담(ITA),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 파리 국립 오페라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분야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주요 무대를 섭렵한 그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 중 한 명임이 분명하다.

고티에 카뤼송 & 장이브 티보데

Gautier Capuçon & Jean-Yves Thibaudet

Classical Music

10.1 Tue 7:30pm
LG SIGNATURE Hall
VIP 150,000 R 120,000 S 90,000 A 60,000

관람연령 |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소요시간 | 1시간 50분(휴식 1회 포함)

프로그램.
슈만, 환상소곡집, Op. 73
브람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e단조, Op. 38
드뷔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L. 135
쇼스타코비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Op. 40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ge Guidance | 8+
Duration | 1hr 50mins with one interval

Program.
Schumann: Fantasiestücke, Op. 73
Brahms: Sonata for Cello and Piano No. 1 in e minor, Op. 38
Debussy: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d minor, L. 135
Shostakovich: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d minor, Op. 40

*This program may b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연주
고티에 카뤼송(Gautier Capuçon, Cello)
장이브 티보데(Jean-Yves Thibaudet, Piano)

©Anoush Abrar

©Andrew Eccles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프랑스 국보급 듀오의 무대

남다른 개성과 넘치는 카리스마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두 아티스트, 첼리스트 고티에 카뤼송과 피아니스트 장이브 티보데. 각자 여러 차례 내한을 통해 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들이 처음으로 함께 국내 무대에 선다. 매년 주요 음악 축제에 단골로 초청받고,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들과의 협연과 리사이틀 등 몇 년 치 연주 일정이 가득 차 가장 바쁜 연주자이기도 한 두 사람은 고전은 물론 현대음악, 팝, 재즈뿐 아니라 음악 외의 분야에서도 활발히 소통해왔다. 20년 터울이 무색할 만큼 세계 무대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온 절친한 사이인 그들의 첫 듀오 무대는 첼로와 피아노를 통해 섬세하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에 꼭 맞는 가을 감성 듬뿍 담긴 곡들로 꾸며진다.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해 작곡되었으나 무게감이 더해진 첼로로도 자주 연주되는 슈만의 환상소곡집부터, 서정적이면서 로맨틱한 무드가 드러나는 브람스의 소나타, 그리고 첼로의 비르투오스적인 기교가 돋보이는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의 소나타와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쇼스타코비치의 하나뿐인 첼로 소나타까지 작곡된 시기 순으로 연주할 예정이다. 깊이의 레벨이 남다른 두 사람

이 만들어내는 하모니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21세기 대가들이 과거 위대한 4명의 작곡가들과 나누는 대화를 조금은 엿들을 수 있지 않을까.

World-renowned cellist Gautier Capuçon and pianist Jean-Yves Thibaudet from France will share the stage together in Korea. These two French virtuoso artists have individually built stellar career over decades commanding exceptional techniques and musicality across a wide spectrum of repertoire, including classical, contemporary, jazz and pop music. In their first duo recital in Korea, they will present a program of cello and piano works from the 19th century Romanticism to the 20th century music ranging from Schumann to Shostakovich. They will masterfully deliver the delicate and diverse emotions of the music in accordance with the chronological order of the compositions.

ARTISTS

고티에 카뤼송 Gautier Capuçon

클래식 음악계의 대모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총애를 받은 라이징 스타에서 이제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첼리스트 고티에 카뤼송. 형인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뤼송과의 듀오 무대로 처음 국내 관객들을 만난 이래 다양한 레퍼토리로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다. 자신의 첼로에 '대사(L'Ambassadeur)'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21세기 진정한 첼로 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그는 팬데믹 시기에 연주 영상을 SNS에 올려 음악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며, 루이비통 재단 및 자신의 이름을 딴 '고티에 카뤼송 재단'을 통해 젊고 재능 있는 연주자들을 후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브리짓트 마크롱 여사가 진행한 자신 공연에서 블랙핑크와 합동 무대에 오른 것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으며, 바이올리니스트 리사 바티아쉬빌리, 피아니스트 장이브 티보데와 함께 미국 전역을 투어하는 등 끊임없이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이브 티보데 Jean-Yves Thibaudet

프랑스 피아니즘을 대표하며 자타 공인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클래식계 패셔니스타로도 유명한 장이브 티보데. 그는 고전과 현대 레퍼토리를 꿰뚫는 통찰력 있는 접근을 통해 지금까지 70개 이상의 앨범을 발매했으며, 재즈와 오페라 아리아를 자신이 직접 편곡해 연주할 뿐 아니라 영화 OST 연주에도 참여하는 등 광범위한 장르에서 활약해왔다. 무대에서 늘 비비안 웨스트우드 의상을 입을 정도로 남다른 패션 감각까지 겸비한 그는 시각예술, 자선 활동 등 음악 외 분야에서도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자신의 음악적 성취를 인정받아 할리우드 볼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현재는 고티에 카뤼송과 함께 뮤직 & 뱅 오 클로 부조(Musique & Vin Au Clos Vougeot) 축제의 공동 예술 고문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존 엘리엇 가디너 &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Classical Music

베토벤 교향곡 2번 & 3번

Sir John Eliot Gardiner & Orchestre Révolutionnaire et Romantique

10.8 Tue 7:30pm
LG SIGNATURE Hall
VIP 280,000 R 220,000 S 160,000 A 100,000

관람연령 | 초등학교생 이상
소요시간 | 1시간 50분(휴식 1회 포함)

프로그램.
베토벤, 교향곡 제2번 D장조, Op. 36
베토벤, 교향곡 제3번 E♭장조, Op. 55 '영웅'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ge Guidance | 8+
Duration | 1hr 50mins with one interval

Program.
Beethoven: Symphony No. 2 In D Major, Op. 36
Beethoven: Symphony No. 3 In E-Flat Major, Op. 55 'Eroica'

*This program may b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이것이 바로 베토벤 교향곡 전곡 연주” 뉴욕타임스
“This Is How to Do a Beethoven Symphony Cycle”
The New York Times



©Chris Christodoulou

영국이 사랑하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존 엘리엇 가디너 20년 만의 귀환

세계 각국의 교회와 성당을 돌며 200편에 가까운 방대한 바흐 칸타타 전곡을 녹음해 클래식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전곡 연주자 대가 존 엘리엇 가디너가 자신이 창단한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20년 만에 내한한다. 이번 연주는 2020년 뉴욕 카네기홀을 포함한 세계 굴지의 공연장 투어로 화제를 모았던 존 엘리엇 가디너 지휘의 베토벤 교향곡 전곡 연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다. 국내 4개 공연장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1번부터 9번까지 차례대로 연주하며, LG아트센터 서울에서는 교향곡 2번과 3번을 선보일 예정이다. 베토벤이 청력을 상실하기 시작할 무렵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작곡된 교향곡 2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아하고 유머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고전주의 교향곡 양식의 절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영웅’이라는 부제로도 유명한 교향곡 3번은 기존 교향곡의 관습을 혁신적으로 뛰어넘어 새로운 지평을 연 걸작으로, 전 세계의 지휘자들이 참여한 2016년 BBC 뮤직 매거진의 설문조사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든 평생 음악에 자신의 삶을 바쳐온 거장 존 엘리엇 가디너와 그의 분신과도 같은 오케스트라가 이 무대에서 보여줄 감동의 순간을 놓치지 말자.

Considered a key figure in the early music revival and a pioneer of 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s, Maestro Sir John Eliot Gardiner returns to Korea after twenty years. Sir Gardiner brings his Orchestre Révolutionnaire et Romantique to present a very special project featuring Beethoven’s all nine symphonies in four different venues in Korea, with symphonies No. 2 & 3 to be performed at LG Arts Center SEOUL. Especially, Symphony No.3, known as ‘Eroica,’ is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greatest symphonies in the history of music as the work completely changed the idea of symphony by breaking boundaries not only in musical forms but also in emotional content.

ARTIST

존 엘리엇 가디너 경 Sir John Eliot Gardiner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음악가 중 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는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필리프 헤레베허, 르네 야콥스 등과 함께 바로크 음악을 당대 악기와 주법으로 연주하는 시대연주자의 대가로 손꼽히며 고음악계의 카라얀이라고도 불린다. 케임브리지 재학 중이던 1964년 자신의 합창단을 결성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오늘날의 몬테베르디 합창단(MonteVerdi Choir)이며, 이후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English Baroque Soloists)와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Orchestre Révolutionnaire et Romantique)를 잇달아 창단했다. 그의 레퍼토리는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중심으로 근대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매우 넓으며, “세월을 초월한 가장 야심적인 음악 프로젝트의 하나(그라모폰)”로 평가받는 바흐 칸타타 순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자신이 설립한 레이블 SDG(Soli Deo Gloria)를 통해 꾸준히 음반 활동을 하고 있다.

필립 드쿠플레 '샤잠!'

'SHAZAM!' by Philippe Decouflé Compagnie D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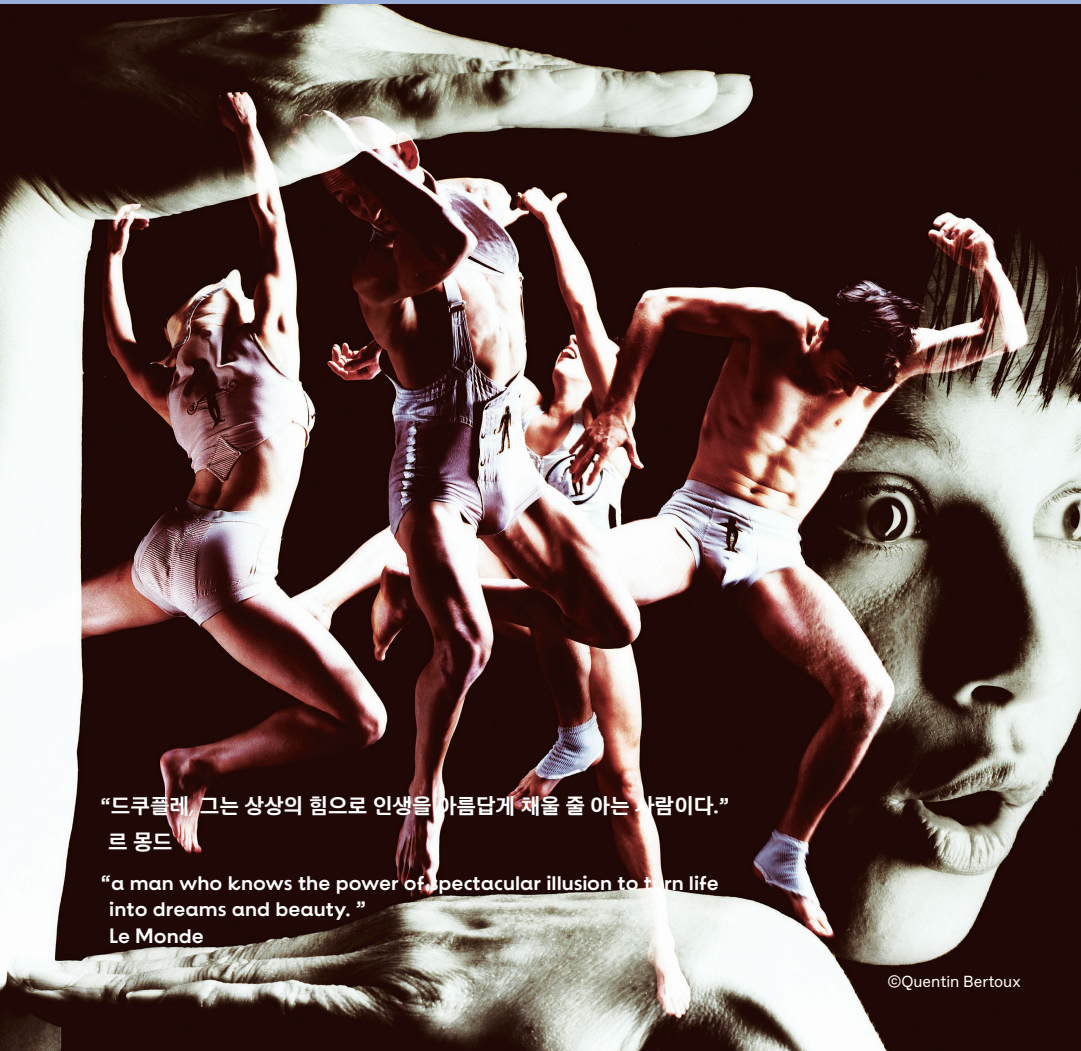
Sponsored by **LG SIGNATURE**

10.25 Fri - 27 Sun Fri 7:30pm / Sat 3pm & 7:30pm / Sun 3pm
LG SIGNATURE Hall
LG SIGNATURE 110,000 R 90,000 S 70,000 A 40,000

관람연령 | 초등학교생 이상
소요시간 | 90분(휴식 없음)

Age Guidance | 8+
Duration | 90mins with no interval

Contemporary
Dance



“드쿠플레, 그는 상상의 힘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채울 줄 아는 사람이다.”

르 몽드

“a man who knows the power of spectacular illusion to turn life into dreams and beauty.”

Le Monde

©Quentin Bertoux

유쾌하고 환상적인 드쿠플레 월드로의 초대장

커다란 털모자를 쓰고 화려한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지휘봉을 흔들며 퍼레이드를 펼치고, 복을 두드리며 트럼펫을 연주하는 라이브 밴드가 그들을 뒤따른다. 신나는 그들의 행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필립 드쿠플레가 창조한 기묘한 세계에 당도한다. 서커스, 무용, 음악, 영상 효과가 어우러진 이 작품은 90분의 시간 동안 독창적인 퍼포먼스로 당신의 혼을 빼놓는다.

필립 드쿠플레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샤잠!'은 1998년 초연 이후 전 세계 주요 극장에서 200번 넘게 공연한 시대를 관통하는 명작이다. 1997년 칸 국제영화제 개막식을 연출하며 주목받던 드쿠플레가 이듬해 선보인 '샤잠!'은 당대로서는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영상·영화 기술로 호평을 받았고, 2001년 파리의 심장かと 같은 오페라 가르니에 극장에 올랐던 증명된 작품. 새롭게 재탄생된 이번 공연에서는 초연 무대에 함께 했던 무용수들과 오페라 가르니에의 공연 실황 영상을 믹스한 색다른 연출 방식으로 또 한 번 놀라움을 선사한다. 공연장 안과 밖, 무대와 영상, 가상과 실제, 과거와 현재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드쿠플레만의 경계 없는 연출은 관객에게 유쾌하고 감동적인 경험을 안겨줄 것이다. 25년이 지나도 여전히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아티스트, 바로 이것이 필립 드쿠플레를 설명하는 말이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다.

Philippe Decouflé, choreographer and director of boundless innocent imagination and delightful creation, returns to Korea after eight years. Since its premiere in 1998, his 'Shazam!' has been performed more than 200 times worldwide, earning its place as Decouflé's iconic masterpiece. This production was presented as a series of experimentations about cinema (the frame, movement decomposition, light, etc.). Very innovative at the time, 'Shazam!' was presenting dancers interacting with their images on pre-recorded films, live video, and mirrors. The 2021 revived version features most of the original cast, which gives the piece a new dimension, a way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dancers' bodies, as well as their ways of seeing the work and their aesthetics. You'll find the remarkable Decouflé's direction freely navigating between inside and outside the theater, stage, and video, virtual, and real, past and present, creating pure pleasure for the audience.

ARTIST

필립 드쿠플레 Philippe Decouflé



©V.Baeriswyl

천진난만한 상상력으로 유쾌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는 안무가 겸 연출가 필립 드쿠플레. 프랑스의 국보급 아티스트로 일컬어지는 필립 드쿠플레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복합 예술 공연의 선두주자로 유명하다. 무용, 연극, 서커스, 마임, 영상, 그래픽, 건축, 패션 등을 뒤섞은 그만의 작업 스타일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데, 프랑스 언론은 이를 가리켜 세상에 없던 '드쿠플러리'(Decouflieries: 드쿠플레 방식의)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올림픽 개막식으로 손꼽히는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개막식 예술감독이자, 태양의 서커스 '아이리스', '파라무아'의 연출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LG아트센터가 소개한 '파노라마'(2014)와 '콘택트'(2016)로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2023년 에르메스 코리아 홀 컬렉션에서 '에르메스 퍼레이드'를 선보이며 여전히 창의성을 입증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조엘 폼므라 '이야기와 전설'



'Tales and legends' by Joël Pommerat
Compagnie Louis Brouillard

11.7 Thu - 10 Sun Thu-Fri 7:30pm / Weekend 3pm

LG SIGNATURE Hall

R 80,000 S 60,000

*아티스트의 의도에 따라 객석 1층만 오픈합니다.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추천
소요시간 | 1시간 50분(휴식 없음)

Age Guidance | 14+
Duration | 1hr 50mins with no interval

“잔혹한 동시에 유머와 개성이 넘친다.” 르 몽드

“À la fois cruel, plein d’humour, et extraordinairement incarné.”
Le Monde



©Elisabeth Carecchio

현대 프랑스 연극의 대표 연출가 조엘 폼므라가 그리는 끔찍하고도 환상적인 미래!

막이 오르자마자 무대 위 청소년들이 쉴 새 없이 욕을 쏟아내고, 차마 따라갈 수 없는 비속어로 숨가쁘게 대화를 몰아간다. 그들의 모습은 대부분 현실과 비슷하지만,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AI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AI와 공존하는 세상은 어떤 지 복잡미묘한 그들의 감정을 더 두드러지게 만든다.

‘이야기와 전설’은 현대 프랑스 연극의 대표 연출가 조엘 폼므라의 냉소적인 상상이 담긴 작품이다. 인공지능과의 공생이라는 현대 사회의 담론을 인간 격변의 시기인 청소년기와 결합하여 그야말로 뜨거운 화두를 만들어낸다. 또한, 대극장 무대를 이용해 다양한 에피소드식 구성을 다채롭게 펼쳐내는 반면, 객석은 전체의 반만 사용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통해 관객들의 몰입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가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조엘 폼므라가 그려내는 사실적이고도 끔찍한, 하지만 환상적인 세계를 마주해보자. 공연이 끝나고 극장을 나서며 치열한 토론에 뛰어들게 될지도 모른다.

French playwright and director Joël Pommerat, a nine-time Molière Award winner and recipient of the Grand Prize in theater from Académie française, is making his long-awaited debut in Korea. His 33-year career, during which he created numerous masterpieces, has earned him unwavering praise and support from the French public and critics alike. ‘Tales and legends’ is an episodic theater work that portrays Pommerat’s cynical exploration of human society in a slightly futuristic setting. In a time of upheaval, how will young people relate to AI in their lives? After the show, you will find yourself eager to engage in discussions with your fellow audience members throughout the night.

A R T I S T

조엘 폼므라 Joël Pommerat



현대 연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브룩이 “이 시대 가장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연출가”라고 극찬한 조엘 폼므라는 몰리에르상(Molière Award)을 아홉 번 수상하고,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로부터 연극 대상을 받은 현대 프랑스 연극계의 대표 연출가이자 극작가다.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2012-2017)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관련한 연극이 조엘 폼므라의 작품이었을 만큼, 프랑스가 야끼는 보석 같은 아티스트다. 한국에서도 번역된 바 있는 희곡 ‘이 아이’와 ‘두 한국의 통일’, 동화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를 조명했던 3부작 ‘빨간 모자’, ‘피노키오’, ‘신데렐라’ 등 33년간 수많은 걸작을 탄생시키며 대중과 평론가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조엘 폼므라. 2021년 LG아트센터 아비뇽 페스티벌 시네마에서 ‘콜드룸’으로 그를 알게 됐다면, 이제 그의 명성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할 시간이 왔다.

©David Balicki

백건우와 모차르트

Kun-Woo Paik & Mozart

Classical Music

11.13 Wed 7:30pm

LG SIGNATURE Hall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관람연령 | 초등학교생 이상

프로그램.
모차르트 소나타, 환상곡 등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ge Guidance | 8+

Program.
Mozart's Sonata, Fantasia, etc.

*This program may b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ROHSH

한국 클래식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 그가 직접 고른 LG아트센터 서울의 새로운 피아노, 그리고 모차르트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매일 연습과 탐구에 매진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곡에 도전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LG아트센터 서울 개관 후 첫 번째 피아노 리사이클을 주자로 나선다. 2003년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프로코피에프 협주곡 전곡 연주를 한 이후 21년 만의 귀환이다. 이번 공연은 그가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세계적인 피아노 명가 스타인웨이 앤드 선스(Steinway & Sons)로 건너가 LG아트센터 서울을 위해 직접 타건하고 선택한 새로운 피아노를 관객들 앞에서 연주하는 자리이기에 더 의미가 깊다.

“음악하는 사람에겐 음악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 끊기면 안 된다(매일경제)”고 말하는 백건우는 피아니스트로 활동해 온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작곡가들의 음악 세계를 철저히 파고들며 ‘건반 위의 구도자’로도 불리는 진정한 아티스트다. 그가 이번에 집중하고 있는 작곡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앨범으로 내지 않았던 모차르트로, 2023년 17개 작품들을 골라 녹음을 마치고 발매를 앞두고 있다. 백건우는 모차르트의 소나타, 환상곡 등 2년에 걸쳐 한국 관객들에게 선보일 신보의 일부를 들려줄 예정이다.

평생 세계 무대를 누비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음악적 수행을 하며 다양한 레퍼토리에서 독보적인 길을 걸어온 거장의 여정에 동참할 기회가 왔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정음(voicing)된 새 피아노의 건반 위에서 그가 더없이 깊은 내공으로 노래하는 모차르트를 통해 진정한 음악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Often called “the truth seeker on the piano keyboards,” world-renowned pianist Kun-Woo Paik presents a recital at LG Arts Center SEOUL on a special piano. He will unveil a new concert grand piano personally selected for the LG Arts Center SEOUL, featuring a new recital program. Paik visited the world’s premier piano manufacturer, Steinway & Sons, in Hamburg, Germany, to choose and test the new piano. He will perform some of Mozart’s sonatas and fantasies on the new piano, which will be featured on his upcoming recording scheduled for release in 2024.

ARTIST

백건우 Kun-Woo Paik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한국 클래식계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백건우는 음악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끊임없이 연구하는 태도로 ‘건반 위의 시인’, ‘건반 위의 구도자’ 등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다. 열 살의 나이에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연주로 데뷔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공부한 그는 부조니 국제 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하고 뉴욕 니움부르크 콩쿠르 우승을 거머쥐며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뉴욕 링컨 센터, 런던 위그모어홀, 베를린 필하모니, BBC 프롬스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이어간 그는 디아파종상을 포함해 프랑스 3대 음반상을 동시에 수상하기도 했다. 두 번의 베토벤 전곡 리사이클을 비롯하여 메시앙, 리스트, 슈베르트, 쇼팽, 슈만 등 폭넓은 레퍼토리에서 깊은 통찰을 보여주며 여전히 열정적으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U+ 스테이지

U+ 스테이지는 아티스트의 의도에 따라 무대와 객석을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는 블랙박스 공연장입니다. 무대와 객석을 다양한 형태로 배치할 수 있는 17개의 이동식 객석 유닛으로 구성된 '시팅 웨건', 60개의 스피커를 통해 완성되는 '이머시브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천장에 설치된 격자무늬 와이어 그물 '텐션 와이어 그리드'는 아티스트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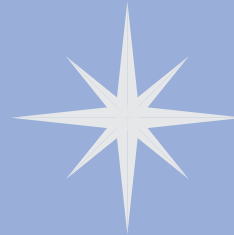


©배지훈

U+ Stage

*U+ 스테이지는 새로운 형식과 창의적인 콘텐츠에 도전하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고객 일상의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유펴러스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The U+ Stage is a black box theatre that can be set up in any form for any given performance which allows artists to freely express themselves with their imagination. The theatre's *Seating Wagon* consists of 17 movable seating units, which can be assembled in many ways to create various stages and auditorium layouts. Technologies like the *Tensioned Wire Grid* and the *Immersive Sound System* have been implemented to provide the optimal performance environment regardless of the stage format.



Sponsored by



이은결 연출 '멜리에스 일루션'

'MELIES ILLUSION' by Company EG

Multi-disciplinary

11.9 Sat - 17 Sun Tue-Fri 7:30pm / Sat 3pm & 7:30pm / Sun 3pm

U+ Stage

All seats 66,000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추천

소요시간 | 80분(휴식 없음)

Age Guidance | 14+

Duration | 80mins with no interval

공동제작 COMPANY EG x LG아트센터



©COMPANY EG

영화와 마술,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아름다운 씨네 퍼포먼스

적막이 흐르는 낡은 장난감 가게, 한 노인이 기차 경적 소리에 잠에서 깬다. 그의 앞엔 고치다 만 낡은 카메라가 놓여있다. 노인은 고장 난 시계 속에서 자신을 닮은 작은 인형을 발견하고, 오래 전의 꿈을 떠올린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뒤섞이는 환영을 보게 되는 노인. 그는 낡은 카메라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영화에 특수효과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인물이자, 최초의 SF 영화인 '달세계 여행(Le Voyage dans la lune)'을 만든, 프랑스의 마술사 겸 영화감독 조르주 멜리에스(Georges Méliès). 영화라는 매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쿼미에르 형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영상에 저장하고 기록하는 형태에 머물렀다면, 멜리에스는 영화 속 시간과 공간을 가공하여 그야말로 환영, 즉 '일루션'을 만들어냈다.

'멜리에스 일루션'은 마술과 영화에 담긴 환상에 대한 이야기이자, 조르주 멜리에스에 대한 이은결의 오마주다. 이은결은 멜리에스가 선보인 영화의 특수 효과들을 차용하여, 마술, 마임, 영상, 퍼펫, 가면극, 모션그래픽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씨네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영화와 마술, 과연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환상일까? 사실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멜리에스의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이은결의 공연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아름다운 장면을 선사해 주기 때문이다. 믿음직한 엔터테이너 이은결과 함께, 은하수를 지나 달나라로 떠나는 기차에 탑승해 보자.

Indisputable world-class illusionist Eungyeol Lee presents a special show inspired by the French magician and filmmaker Georges Méliès who pioneered the use of special effect in films and created the first science fiction film 'Le Voyage dans la lune('A Trip to the Moon' in English).' 'MELIES ILLUSION' is a story that explores the realms of magic and cinematic illusion, serving as Lee's homage to Georges Méliès. In this captivating show, Lee seamlessly incorporates the special effects used in Méliès' films, crossing genres between magic, mime, video, puppetry, masque, and motion graphics.

ARTIST

이은결 Eungyeol Lee



2006년 마술사들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세계마술사연맹(FISM)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제너럴 부문 1위를 차지하고 라스베이거스 특별상까지 수상한 이은결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정상급 마술사다. 그는 마술이 하나의 예술 장르로써 자리매김하기를 꿈꾸며 '일루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 '더 일루션'은 기존 마술에서 자주 쓰이던 마임·퍼펫 등의 표현양식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과 같은 현대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독창적인 공연으로, 2022년 LG아트센터 서울 개관 페스티벌에서 새로운 세트와 장면을 추가한 '더 일루션-마스터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마술의 역사를 다룬 그의 액처 퍼포먼스 '디렉션'은 2016년 현대 공연예술의 메카인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Theatre de la Ville)에 초청되기도 했다. 그는 화려한 테크닉과 타고난 엔터테이너먼트적 기량은 물론, 자신만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작품을 지속 선보이며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COMPANY EG

연극 '타인의 삶'

'Das Leben der Anderen'

Theatre

11.26 Tue - 25.1.19 Sun Tue-Thu 7:30pm / Fri 3pm & 7:30pm / Sat 3pm & 7pm / Sun 3pm
U+ Stage
All seats 77,000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추천

Age Guidance | 14+

공동제작 LG아트센터 x 프로젝트그룹 일다 x 라이브러리컴퍼니
*본 공연은 신작으로, 상세 정보는 추후 공개됩니다.

연극 타인의 삶

객석에 앉아있는 우리는 모두 '타인의 삶'을 훑쳐보고 있다

200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를 수상하고, 타임지 선정 2007년 최고의 영화 10편에 선정됐으며, 여전히 세계 영화 팬들의 인생작으로 꼽히는 영화 '타인의 삶'이 국내 최초로 연극으로 만들어진다. 원작은 독일이 통일되기 5년 전, 동독 예술가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없었던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반체제 주역자 색출만이 삶의 이유였던 주인공 비즐러가 당대 최고의 극작가 드라이만과 그의 연인 크리스타를 감시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와 타인의 삶과 재능, 영혼마저 걸린 기로에서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연극으로 제작되는 '타인의 삶'은 비즐러가 도청기 너머로 옛들은 삶에 영향받아 예술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벽 뒤에 숨겨진 도청기 전선을 통해 이어진 이들이 시대의 압박과 개인의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긴장감 넘치게 펼쳐진다. 경험해본 적 없는 누군가의 삶에 동요하고 흔들리며, 새로운 의미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작품 속 주인공과 객석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묘

하게 닮아 있다. 비즐러가 드라이만의 공연을 보면서 눈을 떼지 못했던 것처럼, 무대의 즐거움을 선사할 이번 작품이 우리의 일상에 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기대해보자.

The masterpiece film 'Das Leben der Anderen' ('The Lives of Others' in English), which won the Best Foreign Language Film at the 2007 Academy Awards, will be staged in Korea for the first time. Set in post-World War II East Germany with freedom of expression stripped away, the story unfolds around dedicated Stasi officer Gerd Wiesler whose sole purpose of life is to hunt down dissidents. However, he becomes sympathetic to East Germany's greatest playwright Georg Dreyman and his actress lover Christa-Maria while having them under surveillance. Audiences will live, breathe, and experience every moment of Wiesler's transformation under the influence of others.

ARTISTS

플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마르크(원작)
Florian Henckel von Donnersmarck

시나리오를 쓰고 편집, 제작, 연출한 단편영화 '도베르만(1999)'으로 전 세계 영화제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2006년 직접 쓰고 연출한 장편 데뷔작 '타인의 삶'으로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인 독일 영화상(Deutscher Filmpreis)을 수상했으며, 이듬해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현 국제영화상)을 수상했다. 2010년에는 안젤리나 졸리와 조니 뎀 주연의 '투어리스트'를 연출, 2018년에는 각본, 연출을 맡은 장편영화 '작가 미상(Never Look Away)'으로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후보에 오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손상규(각색, 연출)
Sang Kyu Son



©김선진

연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오솔로' 등을 통해 뛰어난 플레이어로 인정받은 배우 손상규. 그가 이번 '타인의 삶'에서는 연출가로 자신만의 해석을 담아낸다. 공동 창작 방식을 취하는 양손프로젝트의 멤버이기도 한 손상규는 그동안 안 작가, 연출, 배우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 방식을 선보이며 텍스트 해석이 뛰어난 것으로 호평 받아왔다. 그가 직접 각색하고 연출하는 이번 작품은 작가, 연출, 배우의 시선을 모두 집약한 총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CREATOR'S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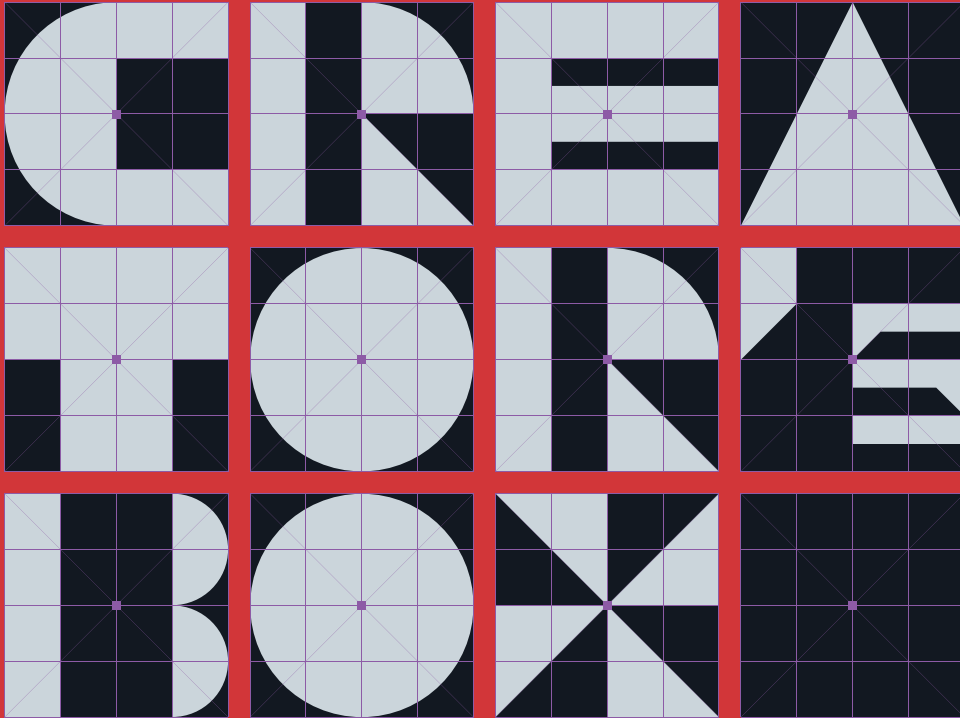
크리에이터스 박스

‘피나와 함께 춤을(가제)’ ‘Dancing with Pina (working title)’

크리에이티브 VaQi
Creative VaQi

9.28 Sat - 10.6 Sun
U+ Stage

*공연 상세 정보 및 티켓 오픈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현대무용의 거장 피나 바우쉬 우리의 곁에서 계속되는 그녀의 춤

여전히 그 빛을 잃지 않는 탄츠테아터의 절대적인 이름 피나 바우쉬. 타계 후에도 탄츠테아터 부퍼탈 이름으로 공연을 계속하고 있는 그녀의 작품은 우리에게 어떻게 남겨지고 있을까. 한국 다큐멘터리 연극의 대표주자이자, 크리에이티브 VaQi의 연출가 이경성이 피나 바우쉬의 미학과 예술을 새롭게 조명한다.

이경성은 피나 바우쉬가 타계한 지 10년이 지나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는 무용단을 보며 그녀의 작품 혹은 작업 방식이 어떻게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또한 유럽의 동시대 공연예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면서, 이를 창조적으로 작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2021년부터 탄츠테아터 부퍼탈을 방문하여 1세대 무용수들을 직접 만나 피나와의 질문과 대화들을 듣고 수집한 이경성은 현재의 무용수들에게 이 언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그 유산이 이어지는지, 무용수 각자의 방식으로 그 과정을 해석하고 탐구한 과정을 엮어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피나 바우쉬가 과거의 유산을 창조적으로 파괴했듯이 크리에이티브 VaQi의 오랜 동료들과 함께

‘춤 연극’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안할 이경성 연출의 Creator's Box를 기대해 보자.

The great legacy of Pina Bausch, the symbolic figure of Tanztheater, never fades. Her works continue to captivate audiences all over the world even after her death. How do today's audiences relate to her works? Lee Kyungsung, a leading creator of documentary theater in Korea and the director of Creative VaQi, explores ways in which Pina Bausch's dynamic choreography and the art forms of the past can remain relevant to the present.

Creator's Box란?

Uncover the CREATOR's hidden project at BLACK BOX!

‘크리에이터스 박스(Creator's Box)’는 LG아트센터가 블랙박스 공연장인 U+ 스테이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와 관객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시대 공연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과 접근법을 가진 창작자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예술적 시도와 관객 체험을 확장하는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2023 크리에이터스 박스

이진엽 연출 ‘차차차원이 다다른 차원’



©Studio AL

2023 크리에이터스 박스

‘로미오와 줄리엣 and more’



©모지웅

2024 서울시향 퇴근길 콘서트

‘영화보다 빛나는 영화음악’

Seoul Philharmonic Orchestra's Rush Hour Concert

4.9 Tue 7pm
LG SIGNATURE Hall

소요시간 | 60분(휴식 없음)
Duration | 60mins with no interval

2년 연속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퇴근길 콘서트가 대극장인 LG SIGNATURE 홀로 자리를 옮겨 더 풍성한 구성으로 찾아온다. 세계적인 영화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 히사이시 조,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다크 나이트〉,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해리 포터〉 등 유명 영화들의 대표 OST를 대한민국 최고의 오케스트라 연주와 음악평론가 배순탁의 재치 있는 해설로 만나보자.

Seoul Philharmonic Orchestra's popular Rush Hour Concert, which sold out both in 2022 and 2023, returns on LG SIGNATURE Hall. In this performance, you can enjoy the theme music from famous films such as 〈The Dark Knight〉, 〈Howl's Moving Castle〉, and 〈Harry Potter〉. Witty and friendly commentary, coupled with beautiful performances by Korea's leading orchestra, will enhance your musical experience.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키즈 콘서트

‘클래식 음악여행’

Kids Concert with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4.12 Fri 7pm
LG SIGNATURE Hall

소요시간 | 60분(휴식 없음)
Duration | 60mins with no interval

난생처음 엄마와 함께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간 서울이와 시향이. 우연히 만난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가 건넨 비밀의 악보를 펼쳐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된다. 흥미로운 애니메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모차르트, 생상스, 차이콥스키 등 위대한 작곡가들이 남긴 클래식 명곡들과 친숙해진다.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린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Two kids follow their mom to a concert to listen to classical music for the first time. An accidental encounter with the genius composer Mozart leads them to travel back to the past with the musical scores he gave them. Guided by delightful animation on the screen, they get closer to the great music by Mozart, Saint-Saëns and Tchaikovsky. This is a concert that even kids with no experience of orchestra performances can enjoy.



마비노기 자라섬재즈 빅밴드 Live

MABINOGI Jarasumjazz Big Band Live

5.1 Wed 2pm & 6pm

LG SIGNATURE Hall

소요시간 | 70분(휴식 없음)

Duration | 70mins with no interval

2024년으로 서비스 2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게임 콘텐츠 '마비노기'의 OST를 재즈로 듣는다!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 전설', '선택과 시작', '문앞에 서다'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마비노기의 대표적인 OST 10여 곡이 17인조 재즈 빅밴드 '더재즈엠베서더스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사운드로 연주된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마비노기 영상과 함께, 추억의 음악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해 보자

Listen to one of the most popular online games in Korea MABINOGI - in jazz! 10 iconic OSTs from Mabinogi, long-loved by fans, such as 'An old story from Grandma' will be performed with the rich sound of the 17-member jazz big band 'The Jazz Ambassador Orchestra'.



교육 프로그램

E d u c a t i o n P r o g r a m s



23 교육 프로그램_서커스 놀이터 '성인 워크숍' 교육 사진 ©모지웅

LG아트센터 서울은 현재의 관객 그리고 미래의 관객을 위한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확장된 예술 경험을 선사합니다.

22년 10월 개관과 동시에 시작된 LG아트센터 서울의 교육 프로그램은 건축, 클래식, 무용 등 각 분야 국내 최고 문화 예술 단체들과의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협업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출발하였습니다.

24년 LG아트센터 서울 교육 프로그램은 건축, 서커스 등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 대상 예술 워크숍을 시작으로 건축 뿐 아니라 기획공연 CoMPAS와 연계해 좀 더 풍성한 성인 대상 강연 프로그램 등 한층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들로 구성됩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공연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LG아트센터 서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4년 교육 프로그램 오픈: 3월 중 (예정)

*교육 프로그램은 LG아트센터 서울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춤추는 건축가'
U*tv 예술교육 다큐멘터리

예고편

The creative and high-quality education programs of the LG Arts Center SEOUL will offer an expanded arts experience for audiences of the present as well as the future. Launched simultaneously with its opening in October 2022, the LG Art Center SEOUL's first education programs presented a unique and distinctive collaboration with Korea's esteemed arts organizations across different genres, including architecture, classical music, and dance.

In 2024, LG Arts Center SEOUL education programs will be upgraded to include newly refurbished children's art workshops focusing on architecture and circus, as well as enriched adult lecture programs connected with the architecture and the performances of CoMPAS.

We invite everyone from children to adults to LG Arts Center SEOUL to experience a variety of cultural and arts education programs.



23 교육 프로그램_건축학교 '겹겹의 문' 교육 사진

136 Fragrance

무게감이 느껴지는 우디 향과
따뜻한 스파이시 향이 어우러진 136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채워보세요



*136 캔들은 안도 다다오 노출 콘크리트 텍스처와 색감을 그대로 살려 실제 콘크리트로 제작되었습니다.

136 캔들
콘크리트 케이스 8.5×8.5×6cm + 향초 40g 37,000원
리필용 향초 1box 40g×2ea 12,900원



136 디퓨저
63,000원/150ml



136 룸스프레이
57,000원/100ml

photo by 김봉희/StudioAL

제품 구매 문의 : LG아트센터 서울 1661-0017

건축 & 오디오 투어

Architecture
& Audio Tour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LG아트센터 서울에는 건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건축가의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내외부에는 색을 입히지 않은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는 '노출 콘크리트' 기법을 사용했고, 튜브(TUBE), 스텝 아트리움(STEP ATRIUM), 게이트 아크(GATE ARC)라고 하는 세 가지의 건축 컨셉도 담았습니다.

The design of the LG Arts Center SEOUL fully reflects the architectural philosophy of Tadao Ando, which is to let nature blend into the architecture.

건축 다큐멘터리



LG아트센터 서울을
건축 오디오 투어로 만나보세요.

누구나 셸프로 감상할 수 있는 건축 오디오 투어를 통해 공연장 건축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안도 다다오의 건축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부터 건축가의 세 가지 디자인 컨셉, 그리고 공연장과 전시 공간 및 루프탑까지. 여유롭게 거닐며 마주하게 되는 8개의 스팟에서 박해수 배우의 내레이션으로 한층 더 깊어진 공간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디오 투어 한국어



주최/기획 | LG아트센터
주관 | 정림건축문화재단
글 | 건축가 배윤경
내레이션 | 배우 박해수

Explore the architectural world of Tadao Ando and listen to interesting anecdotes about designing the venue with your personal audio guide available for everyone visiting LG Arts Center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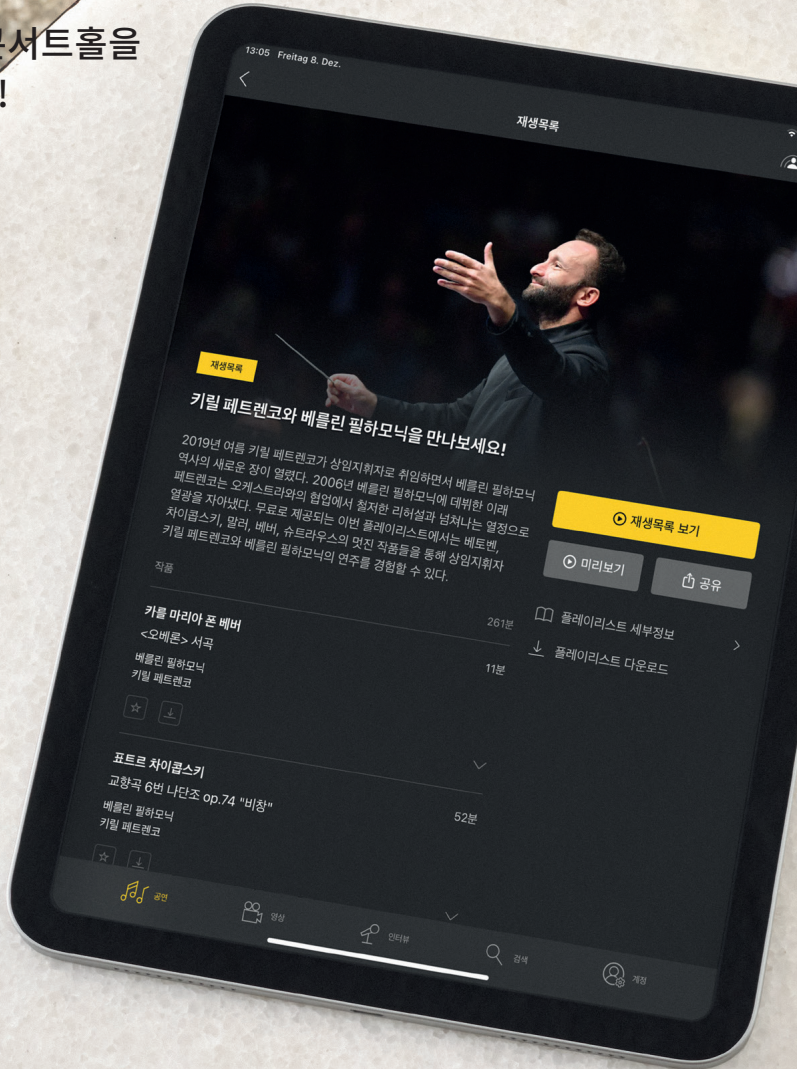
Take a long stroll around the building and find all eight spots where you can listen to stories about the architect's three design concepts, the theaters, exhibitions space and rooftop.

Audio Tour in English



스트리밍으로 만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라이브로, 맞춤형 온디맨드로

지금 디지털 콘서트홀을 발견해 보세요!



카페 & 레스토랑

Food & Beverage

B1

애즈라이크

올데이 브런치 카페인 애즈라이크는 제철 채소로 다채로운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즐길 수 있도록 여러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채소, 토핑, 드레싱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담지 않고 균형 잡힌 다양한 토핑과 조화로운 드레싱으로 정갈한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카페로도 이용되는 공간이니 연인, 가족, 단체 편하게 방문가능합니다.

070-7576-2898, 캐치테이블

오복수산

오복수산은 정직함을 최선으로 신선한 해산물을 사용해 요리하는 일식 다이닝입니다. 신선한 해산물 덮밥 카이센동과 모듬 사시미, 일품요리, 샐러드볼, 특선메뉴 등이 있습니다. 가족, 연인, 동료들과 모임을 할 수 있는 멋진 공간과 음식을 즐겨보세요.

02-6953-9945, 네이버 예약, 캐치테이블

테이스티버거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되었던 에그마니 버거와 크라켄 버거의 시그니처 버거 2종과 풍부한 육즙을 즐길 수 있는 소고기 패티 햄버거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070-8657-4375,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차알

American Vibe, New Chinese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북미 스타일 중식 요리. 미국에서 즐길 수 있는 중식 요리를 한국인의 입맛으로 재해석한 '퓨전 중식 요리'의 신선한 매력을 선보입니다.

02-6953-2157

3F

로마옥

아치 모양의 입구와 인테리어에서 유럽 분위기가 물씬 풍겨오는 로마옥은 이탈리아의 거리로 여행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이름처럼 독특하고 재미있는 요리를 선보입니다. 이탈리아인 퀴진에 한식의 재료를 곁들여,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양식 메뉴를 선보이는 와인 비스트로이며, 대표메뉴로는 매생이 관자 리조또, 전복 파스타, 한우 채끝 스테이크, 티라미썬 등을 선보입니다. 이국적인 분위기와 이탈리아의 맛으로 연인과의 데이트 장소는 물론 친구, 동료들과의 모임을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0507-1334-2396, 네이버 예약

모담

모담다이닝은 최고의 맛과 정성으로 한식 다이닝 문화를 선도하고자 노력합니다. LG아트센터 서울 3층 모담 매장에서 사계절 변화하는 서울식물원의 멋진 전망을 감상하며 새로운 미식의 세계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룸이 있어 최소 4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0507-1444-1080

*카페 및 레스토랑에 대한 문의는 각 매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LG아트센터 서울 회원이 되면 좋은 점!

1. 예매수수료 무료

- LG아트센터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면, 티켓 예매수수료가 없습니다.

2. 편리한 좌석 변경

- PC와 모바일을 통해 티켓의 예매, 취소 및 좌석 변경이 편리합니다.
(동일 좌석 등급, 할인권종에 한함)

3. 적립과 사용이 편리한 아트포인트

- 홈페이지에서 티켓 구매 시 일반회원 1%, 우수회원 2%가 적립됩니다.
- 기획/대관 구분없이 공연 티켓 구매 시 적립되며, 1,000원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 30% 이상 할인, 패키지 구매 시에는 적립이 되지 않으며, 일부 공연의 경우 적립·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적립일 기준 2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4. 줄 서지 않고 한 번에 입장하는 모바일 티켓

- 카카오톡에서 전송 받은 바코드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 입장 전까지 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기프트카드

오직 LG아트센터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을 선물하세요.



- 권종: 10만원 권, 50만원 권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인증번호를 입력, 결제 금액을 차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장 구매만 가능하며, 방문 전 전화 문의(1661-0017) 바랍니다.



안내

법인회원권

LG아트센터 서울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법인회원 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의 창의적 DNA를
개발시키고 조직 문화에 활기를 불어넣으세요!



안내

오시는 길

오시는 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6 LG아트센터 서울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안내



구글 지도
Google Map



네이버 지도
NAVER Map



카카오 지도
Kakao Map

대중교통 이용안내

9호선/공항공철도 마곡나루역
(3,4번 방향의 지하통로에서 로비로 바로 연결)
5호선 마곡역
(3번 출구에서 700M, 도보 10분 가량 소요)

실시간 주차 정보

*주차 가능 대수는 주차 진행 중인 차량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차 현황

Contact

홈페이지 Website

www.lgart.com



한국어



ENG

전화 문의 ARS

1661-0017
화(Tue)~금(Fri) 10:30am~6pm

이메일 문의 E-mail

lgarts@lgart.com

티켓박스 Ticket Box

현장 창구는 공연 시작 2시간 전 오픈합니다.
Ticket Box opens 2 hours before the performance.

*월요일, 공연이 없는 주말/공휴일 휴무

*Closed on Mondays, Weekends & Holidays with
no performance.